

안 정 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감성적 공간으로서의 수집상자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 화 과

정 미 라

감성적 공간으로서의 수집상자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안 정 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 년 5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 화 과

정 미 라

인 준 서

정미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3년에 제작된 작업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정리 분석하였다.

본인에게 기억이란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손에 닿아왔던 부산물들의 일부를 모아온 수집 상자들이 있다. 그것은 삶을 통해 겪는 경험과 체험의 흔적이 수집된 것으로써 일종의 기억의 저장(貯藏) -소(所)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 속의 이야기들을 회미하게 기억하거나 잊어버린다. 그러나 본인은 수집상자에 보관 되어진 체험의 부산물들을 통해 지나온 과거의 추억들이 좀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인은 이러한 수집상자들을 열어 보았을 때 생겨나는 정서적 현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수집상자는 마음의 동요가 일게 하는 감성적 공간인 것이다.

감성적 공간으로서의 상자를 표현한 작품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자를 모으게 된 개인적인 동기와 인간에게 일어나는 감성적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심상에 일어난 정서적 현상의 상징적 표현에 있어서, 왜 단순한 빈 상자의 이미지를 도입시켰는지에 대해 밝혔다. 또한, 상자란 공간으로부터 마음이 동요되어 나오는 감성표현을 점으로 함축시켜 미묘한 감정의 움직임들에 대한 표현과 여러 감정들이 확산되어 퍼지는 내면의 느낌을 표현한 배경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감성적 공간으로서의 수집 상자들을 표현한 작품 사진과 설명을 자세히 덧붙여 소개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수집상자와 정서적 현상	3
III. 정서적 현상 이미지와 감성적 동요 표현	5
1) 상자의 상징성	9
2) 감성 표현을 위한 조형 요소	11
3) 작품 제작에 따른 표현 기법	16
IV. 작품설명	18
V. 결 론	28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인간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순수하고 따뜻했던 과거의 시간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며 그러한 추억의 공간 안에 정서적인 위안처를 얻고자 한다.

옛 생각에서 오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추억에 얽힌 물건이나 관련된 장소 등을 통해 기억하고 지각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다. 그렇듯 본인에게 과거를 기억해 낼 수 있는 흔적들을 담아놓은 수집상자가 마음에 감정을 일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인은 성인이 된 지금에도 일련의 수집하는 작은 습관이 있다. 그러한 것은 수집된 것 들을 보면서 생겨나는 어린시절의 그리움과 즐거움의 동요를 아끼는 데서 오는 습관일 것이다.

본인은 인간의 정서적 현상을, 흘러버린 시간들과 함께 지나간 그 시절의 추억을 바라며 누구나 한번은 추억하고 싶은 것, 간직하고 싶은 것 들을 담아봤을 상자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인과 관련된 수집 상자에 대한 설명을 하여 표현 동기를 밝혔다. 그리고 마음에 동요되는 정서적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인간의 체험과 경험에서 오는 기억과 지각으로 형성되어진 어떠한 물질의 상(像)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심리적 기억에 남아있는 상에는 감성적 동요가 수반되어진다. 정서적 현상의 상징적 표현을 위하여 도입한 상자와 점, 그리고 동요되어 퍼져나가는 감정의 상태를 표현한 바탕화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본인 나름대로 감성적 확장공간을 위해 선택한 선, 점, 바탕 처리 등에 대한 기법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어 기술하였다.

끝으로 본인의 감성적 공간으로서의 수집 상자들을 표현한 작품사진과 설명을 예로 들어 실증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본인이 작품에 표현한 내용과 조형적 시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립함으로써 자신의 지금까지의 작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심화시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수집상자와 정서적 현상

본인에게 각기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작은 상자들이 많이 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모아온 친구들과의 쪽지나 편지들을 담은 상자, 작은 수첩에 정성들여 쓴 일기뭉음을 보관한 상자 이외에도 특별한 인연과의 흔적들을 모아놓은 상자,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꽤 오래전부터 한 가지 모양의 연필만을 모아놓는 상자 등등 내 나름대로의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나의 상자들이다.

본인은 그것들을 아주 가끔씩 시간이 날 때 마다 열어보는 것을 즐긴다. 그 순간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 있다. 선생님의 눈치를 피하며 주고받은 종이쪽지나 편지들이 가득한 상자 안에서 유치하고 철없는 초등학교 시절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상자를 열면 뽁뽁이 기록한 일기들, 크리스마스카드들과 생일카드들도 있다. 기념이 될 만한 날들마다 받은 카드는 인쇄카드에 불가하지만 그 때 당시 손 때 묻은 그것들을 보며 마치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된 듯한 감정에 흡수되는 것처럼 과거의 흔적 앞에서 다시 공감하며 지나간 세계에 폭 담겨 감정에 휩싸여 울고 웃는다.

이렇게 기억을 불러일으켜주는 상자들은 추억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열어 볼 때마다 다른 감정들을 가지게 하는데, 그러한 감정들이 부각되어 다양한 이미지들이나 의미를 내포하고 일상 속으로 새로운 정서적 현상을 심상에 일으키며 다가서는 것이다.

기억을 담아놓은 상자들은 그냥 내용물을 담은 용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여다 볼 때마다 그 시점의 사람들을 내게 데려다주고, 그때 당시의 같이 했던 이야기들을 가져다주는 감정의 배달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본인에게 있어 상자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감정을 배달해주면서 정서적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수집상자인 것이다.

이러한 감정의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노래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기록이나 물건들을 보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아련히 남아있는 감정이 느껴지듯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에 들었던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노래와 함께 했던 특별한 추억들이 기억되면서 감정이 오버랩 된다. 저마다의 추억이 깃든 노래에는 그것에 공유되어있는 감성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본인은, 수십 매에서 수백 매에 이르는 레코드판에서 선택한 노래나 음악을 들었을 때 생겨나는 감정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Juke Box가, 본인의 수많은 수집 상자들과 나누는 감성적 공간과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My Juke Box 라는 제목을 작품에 상징적으로 붙였다.

Ⅲ. 정서적 현상 이미지와 감성적 동요 표현

본인에게 있어 상자는 단순히 잡동사니를 담은 상자가 아니라 과거 추억의 흔적들로 인한 본인의 감정을 과거의 공간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친숙한 연결 통로이다. 상자는 공간의 시간적 이동이 되는 동시에 시간의 공간적 이동도 되는 것이다.

상자 안의 보존된 흔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본인의 삶을 드러내준다. 상자 안에 존재하는 과거의 매개체들은 마치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면, 쇼팽(Frederic Francois Chopin, 1810~1849)의 ‘녹턴(Nocturne)’이 떠오른다는가, 아니면, 벚꽃이 휘날리는 게 떠오른다는가하는 연상의 이미지로서 나의 신체에 각인되었던 것들을 재생 시킨다. 즉,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반응하는 심리적 체험 이미지와 더불어 연상됨으로써 추억으로 재생된 이미지인 것이다.

대상이 없는 이미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 물질이란 이미지의 전체인 것이며, 기억해내는 모든 것이 이미지화 될 수 있다. 이미지(image)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단지 대상의 외관적 복제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 혹은 기억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생산물, 다시 말해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감각과 인상의 정신적 재현에도 관계할 수 있다.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그 대상과 보는 이의 마음이 서로 만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심적 이미지(mental imagery)는 심적 표현(표상:representation)에 의한 형태이며, 심상 혹은 단순히 이미지라고도 불린다.¹⁾

1) 조정덕, 남기춘 공역, 「지성과 감성의 심리학」, 웅보출판사, 2002, p97

이미지란 우리의 의식(마음)에 비쳐진 대상이다. 여기서 시지각의 심리 또는 조형심리라는 말이 가능해진다. 즉, 어떤 형태를 보거나 만들어낼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미지는 시각적 감각에 의미를 부여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심상(mentalimage)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심상은 기억으로부터 지각되어져 나타난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Bergson, Henri, 1859.10.18~1941.1.4)은 정신과 물질의 교차점이 바로 기억의 지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모든 지각에 기억이 배어 있다고 본다. 그는 더 나아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연상법칙에 대해 말하면서 연상법칙에는 언제나 연상의 자극물로서 유도체와 그것에 의해 환기되는 피 유도체가 있고 이런 관계는 연속적으로 하나의 기억사슬을 이루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피 유도체는 감각에 의해 유도되는데 그 때 유도된 이미지를 그는 '기억-이미지(souvenir-image)'라고 부르고 있다.

기억은 받아들인 인상을 기록하고 그 흔적을 보존하는 신경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지각으로 환원된다.

지각한다는 것은 사물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성질 즉, 외재성(外在性)을 검증하는 것이고, 신체의 주위에 가능한 행동의 영역을 전개하면서 외재성을 우리의 가능한 경험에서 파악하고 고찰하려는 것이다. 의식 그 자체는 과거의 감성에서 감각적 연관에서 나온 것이다. 지각 안에서 감각은 항상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실재적인 것과 실재에 대한 표상 등의 사이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이면서 감정으로 스며든다.

사실상 기억이 배어 있지 않는 지각은 없다. 아주 번번이 이런 기억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지각을 옮겨 놓고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인 지각에

관한 몇몇 지적만을 부여하는데, 이런 몇몇 언급은 우리에게 이전의 이미지들을 상기시켜 주려는 단순한 신호들인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내용과 사물을 경험과 함께 기억으로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 누군가와 함께 들던 음악을 듣게 되거나 또는 같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보았을 때, 그것에 얽힌 경험된 신체적 감각들이 더해져 감수성에 젖어든다. 또 다른 예로 많은 성장 영화 등을 볼 때에도 과거의 체험 속에 만들어진 경험이나 추억, 향수(鄉愁)등으로 인하여 그 순간 여러 내면의 감정들과 함께 기억이 되살아나고 지각되면서 이미지화되며 동요된다. 그래서 지각되어지는 기억은 곧 과거의 감정 에너지의 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감정의 동요 체험은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일 수밖에 없다. 신체를 통한 체험이 격렬할수록, 감정의 동요에 가 닿으려는 간절함이 함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추억은 우리 신체에 일으킨 울림을 신체가 받아들이는 느낌의 정서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서적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 이러한 정서적 현상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중심으로 경험되었던 일상이나, 경험이 만들어낸 사물들 속에 이루어진다. 인간이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아가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보이는 것으로 경험하고, 모든 방향에서 나라는 자아를 중심으로 통합된다.

육체를 동요 시키는 감정인 정서에 대해 조금 더 풀어 표현해보자면 정서란 누구나 겪게 되는 내적 상태로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뜻한다. William James는 정서란 “육체적 흥분은 흥분된 사실의 지각을 곧 뒤이어 쫓고 그 일어나는 육체는 흥분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곧 정서이다”²⁾

라고 진술하면서 우선 일차적으로 인간을 흥분시키는 사실을 지각한 다음 그 지각이 인간의 육체를 흥분시키고 그 육체적 흥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정서라고 이론화 하고 있다.³⁾

정서의 원인을 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정서는 자극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 의미들의 해석, 평가, 지식 그리고 기억과 같은 정신적 사건들로부터 일어난다. 나의 육체를 동요시키는 정서의 원인들에는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이루어진 경험들로 인해 무수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자 안에 모아둔 나의 응집된 사건의 기록이나 보관되어진 대상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자 안에 있는 기록들이나 물건들은 나와 마주쳤을 때 신체에 큰 메아리를 주는데 그것이 주는 동요는 일종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나의 정서의 산물들인 셈이다.

상자를 모아놓는 각별함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추구된다. 그리고 즐거움은 정서로서 파생된다. 상자 안에서 보여주는 과거의 기억과 개인의 성장이란 특수한 측면은 현실의 지성이나 계산에 의한 지각이나 지성에도 접근하지 않고, 그 대신 감정의 배달부의 역할을 갖고서 감성적인 공간을 제공하여준다.

나의 모든 상자들은 당시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밀한 추억의 축적 공간이다. 이것은 상자라는 사물이 본인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심상이며 나아가 심상을 상징화시킨다. 모든 사물은 인간의 의식을 통해 의미화 되며, 그 의미화 된 사물로 표현될 때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사물로서 의미를 지니고 인식하게 된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은 보관과 정리를 위한 단순한 상자가 아

2) James, willam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Ⅱ」
Dover Publication, Inc, NewYork , 1950(1980). p449

3) 윤현섭, 「정서의 논리」, 1987, 강원대학교 출판부, p14

니다. 본인의 모든 기억들은 옛날에 체험된 사건들의 초상화이며 그것이 보관된 상자들을 통하여 본인의 추억과 경험을 간직하고 싶은 것과 또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주길 바라는 정신적인 본능, 즉 이러한 본인의 심상이나 정서적 동요 현상, 내지는 감성적 이미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표현 시키는 것이다.

1) 상자의 상징성

상징은 단순히 ‘대신함’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감각적 실체 또는 구체적 사물이나 심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은 상징의 세계에 태어나서 상징의 삼투작용을 체험하며 성장한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여 구체화한 상징들의 보고이다. 그래서 많은 상징이 우리에게 어떤 의식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불러일으킨다>는 뜻은 우리의 이성애 앞서, 먼저 일어났던 기호의 작용이 이미 우리 안에 숨어있다는 말이다. 상징의 자의성이나 규약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상징은 매우 의미심장한 정념과 인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⁴⁾

또한 상징은 의미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세계를 객관적으로 외부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이때의 상징적 표현은 해석자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이해되므로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연상 작용이 가능한 경험된 상징적 매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구체화된 의미의 대상이 선택 될 때 해석자와의 의사소통은 증폭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상징적 표현을 소통이라는 측면으로 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4)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p44

들로부터 출발하여 보편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장치로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보편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촉되고 만져지는 물질적 의미로서 이것은 감성적 공간으로서 상징시킨 수집 상자에 대한 접근인 것이다.

본인은 수집 상자에서 꺼내어 돌아보는 기억된 이미지와 추억의 파편, 그리고 감성적 동요, 그 알 수 없는 심리세계를 상징화 내지는 이미지화 내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갖고 있는 수집 상자들의 생김새나 상자 속 과거의 물건들을 그대로 재현이나 묘사해내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감성적 이미지들과 동요. 그것을 연상 시켜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과 이것들을 보관 할 수 있는 상자 이미지를 오버랩 시키면서 현재의 의미로 되살려보자는 것이다.

인간은 각자가 사물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지각되어진 사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상징화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물건을 담은 상자라 해도 그 안에 나의 의식을 담아내면 특별해 보일수도 있다. 그러한 상자의 의미는 본인에게 있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일상을 겪은 기억을 재현하는 과정은 이미지에 의해서이다.”⁵⁾ 라는 명제와 같이, 재현시킬 수 있는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상자가 감성적 이미지로서의 본인의 모티브이다. 상자를 기억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충실한 재현, 즉 반박할 수 없는 과거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존재했던 것을 담아놓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상자라는 이미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담는다는 용도의 도구적 사물로서, 인식하지 않아도 되리만큼 극히 평범하고 친숙한 보편성을 가지

5) 최민 역, E.H. 콰브리치, 「서양미술사」, 열화당, p.62.

고 있다. 즉 낱아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처박혀져 먼지가 쌓이거나, 또는 무엇을 열심히 담아내고 있는 보편적인 상자의 모습에서 앞서 말한 듯이 사물 그 이상의 의미들을 내포하여 상징하려 하였다.

수집상자들은 본인의 심리적인 공간으로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내포하면서 상자 속에 내재한 생성의 시간을 암시한다. 삶을 이어오는 과정의 시간성과 연관되어 열린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시간의 공간화’라는 요소를 창조한다. 결국 상자는 이 요소들을 계기로 이질적인 차원의 것들이 접속과 소통을 일으키는 순간이자 상징된 공간이다.

본인 작품에서는 그러한 상징된 상자들이 모두 빈 상자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워지고 열려진 상자 이미지의 도입은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토대로 동요되고 표출된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또다시 현재의 정서들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2) 감성 표현을 위한 조형요소

① 선

감성적 공간인 수집상자로부터 표출된 감정이 퍼져나가는 의미로써 상자의 형태를 따라 직선이 등장 한다. 직선은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이다.⁶⁾

일반적인 기하학적 설명으로써의 선은 점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선은 점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점 자체 내에서 폐쇄된 정적(靜的)인 것이 파괴됨으로써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외부로부터 자

6) 차봉희 역, 칸딘스키, 「점·선·면」, 열화당, p47

극을 받아 그 힘의 표현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은 다른 어느 조형요소보다도 창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작가의 내면세계의 흐름에 따라 화면위에 나타나며, 그 자체가 정서 충동을 일으키는 감정인 것이다.

감성적 이미지로 상징된 공간에 이루어진 연장선들은 상자 외부의 공간으로부터 한쪽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지녀 화면의 긴장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 작품에서 선은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지지대적인 역할과 동시에 물성이 배제된 공간을 창출하고 있자 무한한 정신공간으로의 연결을 하는 역할을 갖는다. 더불어 약간의 비 중심적인 선에서 면에 대한 느슨한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선들이 면과 융합되어 있는 것보다는 면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같이 보이기도 하여 정서적 현상이 감성의 크기에 따라 정적인 것과 증폭되는 동적인 면을 함께 내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들 사이에는 심리적인 이끌림, 또는 긴장을 느끼게 하였다.

작품 제작에 있어 연장선과 함께 투시선도 사용하였는데 투시선은 단순한 시각현상에 근거한 공간적 처리방법이다. 그로 인해서 상자가 커져 보이기도 하고 작아져 보이기도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마치 감성적 공간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나의 심상의 변화 또는 시간의 공간화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

② 점

상자들은 모든 잡동사니를 다 싸 담을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이 상자에 넣어 왔던 것은 정서적 현상인 감정이나 감성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세계가 된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삶의 흐름을 보여주는 율동적인 일련의 상징이다. 과거 누구와 함께 보

왔는지 기록이 되어있는 영화티켓들, 말린 장미와 성장기록들의 대체물인 쪽지와 일기 등이 그것이다.

본인이 인식하는 감성적 이미지 현상과 동요를 점이라는 최소단위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기억함으로써 생겨나는 감성인자들과 그러한 인자들의 결합으로 동요된 감정의 움직임들을 점으로 나타 낸 것이다.

기하학에서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Essence)이며, 개념상 비물질적인 본질이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기 이전 의식의 상태에 접근 하고자 하는 내적인 의미이며, 더불어 ‘인간적인’ 서로 상이한 속성들이 숨겨지고, 절대적인 울림을 감추는 속성과 ‘최소’의 형태라는 이중 울림을 지닌 추상적 인식하의 점인 것 있다고 칸딘스키는 말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점을 인식하고 있다.

조형에 있어서 점은 위치, 크기 모양이 있다. 그러므로 한 공간 안에 점이 놓이려면 무게가 생기고 우리의 시각은 여기에 집중된다.

본인 작품에 있어서 점은 기억에 따라 동요되어 일어나는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이다. 그것은 상징적인 한 측면으로써 임의의 형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형식적인 단위이다. 그러므로 점을 여러 위치에서 반복하여 리듬감 있게 울렁거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의 정서가 이는 긴장감의 상태, 다시 말해 나의 감성적 동요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작품화면에 표현된 점은 사회적 최소 구성 요소인 한 개체적인 기호로써 감성인자적인 작용을 하고 있으며, 임의의 움직이는 형상은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상태를 상징적인 요소로 적용시켰다.

또한, 본인이 스텐실 기법을 이용하여 찍어내고 있는 점은 다양한 색 점으로 표현된다. 그 색 점 들은 크고 작은 성질을 가지지 않은 균등한 크기로 이루어지며 색은 감성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된 색 점들로서 형성된 화면은 감성적 동요가 이는 형상 이미지로써 맥락을 같이 하였다.

반복이란 내적인 동요를 상승시키는 강렬한 수단이며, 동시에 단순한 리듬을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이 리듬은 또한 어떤 예술에서든지 일차적인 조화를 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⁷⁾

반복된 점찍기의 진행방향을 보면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게 된다. 상자 안에 담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의 시간을 조형화하였다. 점하나에는 일차원에 갇든 무한의 개념처럼 응축된 시간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점의 역할은 다의적으로 함축된 요소로서 본인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점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지되어 있으면서 관람자의 고정된 시각적 자각을 자극한다. 이것이 본인이 제시하는 점의 속성인 것이다.

칸딘스키가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도 언급 했듯이 인상주의자들의 점이 단순한 색채입자의 집합을 통해 자연의 인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려했다면, 본인은 점을 본인의 조형언어로서의 전달하고자 하였다.

③ 감성적 확장 공간 표현을 위한 바탕 면과 색

색채는 눈이라는 감각에서 지각된다. 즉 시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시각을 매개로 하여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붉은색을 바라볼 때 과거에 화재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색일 것이고 그와 반대로 붉은색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청혼을 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그 붉은색에 대한

7) 차봉희 역, 칸딘스키, 「점·선·면」, 열화당, 2004, p30

시각적 감정이 사랑스러울 것 이다. 색들의 형상과 의미란 개념에 의해 고착 되어 사라지기 직전의 이미지들의 흐름이고,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동, 인상, 기억으로서의 의미이다.⁸⁾

또한 계절에 따라 떠올리는 색채 이미지가 다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다른데 이는 색채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일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각자가 드는 정서에 의한 색깔이 틀리지만 광고에서만 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remon yellow를 상쾌하다고 느끼는 것도 색채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색을 응시 했을 때에 색깔들의 심리적인 효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인 동요를 만들어 낸다.

“색채는 형태처럼 공간의 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동이다. 색채는 사고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 직접적으로 화가의 본성을 반영해준다”⁹⁾ 라는 말은 색채가 화가의 감정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잘 반영해 주는지를 알 수 있다.

색채는 작품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조형의 한 요소로서 감정의 언어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본인은 바탕 면 부분에 물감의 중첩을 이용한 감성적인 표현을 시도한다. 물감의 중첩에서 생기는 색의 농담에 의한 면의 처리는 2차원적 평면을 3차원적 공간으로 보여 지게 한다.

화면에서 보여 지는 시각적 공간효과는 상상력에 의한 시간성의 도입이 이루어지며 초월공간으로 내닫는다. 공간은 생명체의 시간개념 즉 삶을 이어 오는 과정의 시간성과 연관되어 연속적 유동성을 띤 열린

8) 이수균 역, 만리오브루자틴, 「색, 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미진사, 1996, p7

9) 김화영 역, 르네위그, 「예술과 영혼」, 서울, 열화당, 1979, p188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스며들거나, 물감이 종이에 배어 들어가는 듯한 얼룩진 효과는 축적된 시간의 자국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준다.

그리고 그러한 확대된 감성공간에 유성과 수성의 반발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촛농을 떨어트린 효과의 색 점이 보여 지고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동요되어 흔들리고 있는 감성 인자로서의 점이 아닌 정지되어 있는 감성인자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수집상자의 하나하나의 요소들로 상징된 것이다.

상징된 요소들을 안고 있는 색의 확장된 중첩효과는 시간성의 의미와 결부되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우주공간처럼 보인다. 우주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들의 세계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즉 밀도 있는 내면의 공간으로 확장시키면서 나의 심상을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이끌도록 하였다.

3) 작품제작에 따른 표현기법

본인이 바라보는 판화의 개념은 판화적인 요소와 페인팅과 같은 다른 요소의 접목이다. 즉 본인이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을 이용하여 새로운 화면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판화란 통상적으로 ‘판에 의한 그림’을 말하면서 복제의 기능과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복제와 복수 제작이 무한정으로 가능한 이 시점에서 판화의 형식에 회화적인 표현이 합쳐졌다고 해서 판화가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이다.

본인은 작품제작 중에 판을 이용하여 찍어내기 이전과정에 있어 수채화 물감을 이용한 페인팅 작업을 한다. 그것은 감정이 퍼져나가는 공간

표현을 위해 본인의 감정이 움직이는 데로 붓 끝을 따라 정서적인 나의 감성공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수채물감의 자연스러운 중첩의 효과를 이용한 공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물감의 중첩, 물감과 물감사이에서 일어나는 선후의 착색과 우연적 효과, 그리고 얼룩에 의한 반복성에 의한 감성 공간의 확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확대된 감성공간에 나타난 색 점들은 유성인 붓농을 떨어뜨리고 다시 그 위에 수채 물감을 덧칠함을 몇 차례 거친 뒤 붓농 부분을 녹여내면 색 점들로 나타난다.

빈 상자가 들어나게끔 처리한 바탕화면위에 베니아(veneer)판의 결을 이용하여 찍어낸다. 그것은 권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자가 아닌 아련한 기억들과 감정들을 떠올려 주게 하는 감성적인 공간이기에, 상자나 바탕이미지를 결 사이사이로 간접적으로 들어나게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상자로부터 공간으로까지 확장시킨 직선을 표현하는데 있어 먹지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연필이나 볼펜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먹지를 대고서 선을 그어내면 약간 퍼지는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먹지를 이용한 직선 굵기는 감정에 동요가 퍼져 나가는 동요 상태, 즉 정서적 현상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IV. 작품 설명

<작품1>

본인은 주어지는 ‘비어있는’ 대상인 하얀 종이, 그 자체적인 흰색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채화물감을 이용해서 색을 중첩시키면서 번지고 얼룩지며 스며 나오는 것에서 정서적인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 그 사이사이 기름과 물의 반발작용으로부터 얻어진 촛농을 이용하여 상자를 상징한 수많은 정지되어있는 점들을 만들어나간다.

상자는 나의 심리적인 공간으로서 마치 감정 인자처럼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기억을 내포하면서 상자 속에 내재한 생성의 시간을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삶을 이어오는 과정의 시간성과 연관되어 열린 공간, 내면적 공간을 스며져 나오는 얼룩진 공간과 함께 상자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제한된 색채에서 동계열의 색조변화는 무한한 공간의 표상을 보이고 어둡고 밝음의 색조간의 대조강약의 공존이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긴장감을 더해준다. 색상 선택에 있어서 검정색조는 암흑적이고 적막함을 주나 이끄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화면 안에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마치 이동하는 듯한 상자의 배열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투영되는 상자에 의한 단조로움은 간접적 시각전달 표현방법인 선에 의하여 상의 공간으로부터 오는 나의 심상의 변화의 의미로서 긴장감을 주었다.

작품 위에 찍혀져 나오는 색 점들은, 나의 기억들이 지배하는 내적인 정신적인 동요의 흐름이며, 그것들은 나 자신을 담고 있는 상자들에서 임의의 형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빠져나오고 있다.

수평·수직 혹은 사선으로 이루어진 투시 선들로 인해 새로운 공간, 움직이는 감성 이미지를 형성케 하고 강한 유채색과 무채색의 대비로 자칫 단절되어 보일 수 있는 화면에 대비되는 두면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작품 1]



My Juke Box

wood cut print, mixed media 71×100cm, 2003

<작품2>

본 작품에서는 육면체로 이루어진 box들을 중심선 가까이에 배치에 안정감을 유도하면서 상자들이 쌓여 지는 작은 변화 속에 리듬감을 찾고 지루함을 완화시켰다. 여러 개가 싸여진 형상들은 단순히 한 개가 놓여졌을 때 보다 보는 이의 시각적 집중을 요구한다.

투명한 육면체의 공간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 자칫 허전하며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어 주변의 느낌과 어우러지게 상자 안으로 그 여백의 흐름을 이끌어주면서 소통 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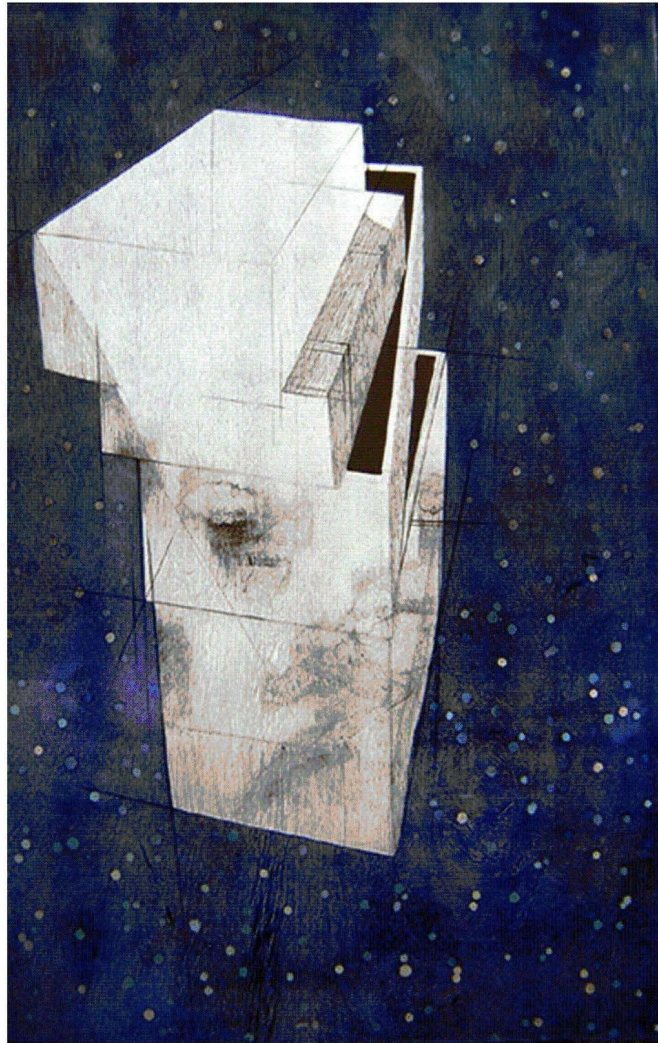
본 작품은 푸른색조로 앞서 작품1보다 물감의 스밈을 얼룩지게 이끌어 더욱더 신비하고 내면의 감성공간처럼 보이게 하였다.

푸른색은 언제나 어두운 것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높은 하늘과 멀리 있는 산들이 청색으로 보이듯이 푸른색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우주하늘 대기는 파랗다. 밤과 어둠의 색, 차가움 서늘함이 그러하다. 다시 말해 본인에게 있어서도 푸른색은 먼 곳과 그리움의 색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푸른색조로 이루어지는 화면은 상자가 본인에게 주는 삶의 경험에 대한 그리움의 까닭처럼 내면의 공간을 표현해 내는 최고의 색으로 뽑을만하다.

작품2에서 색 점 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 버린 상태를 보이하고자 하였다. 무한의 공간에 다 토해내져 있고, 주변의 공기가 자아를 대체한 상자로 변해온다. 적막이 흐르는 듯한 저 공간에 다 토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과거를 추억하며 그리움이 남는 느낌으로 표현했다. 그리움을 불러내는 푸른색조가 그 분위기를 더 해주었다.

[작품 2]



My Juke Box

wood cut print, mixed media 71×100cm, 2003

<작품3-1,2,3>

본 작품은 시리즈물로써 기본적으로 육면체의 형상을 가진 상자의 형상들에 변형을 주었다.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육면체의 프레임을 떠나서 내적인 감정들이 보여 질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작품3-1>은 상자를 이제 막 열었을 때의 나의 감성적 동요상태를 표출해내고자 하였다. <작품3-2>보다는 정적이지만 이제 막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상태를 표현 하였다.

<작품3-2>는 활발히 움직이는 나의 동요들이다. 빠른 리듬감을 보이고자 박스의 형태자체도 <작품1,3>에서 보여 지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에서 달리 공간에 떠보이게 하여 리듬감과 운동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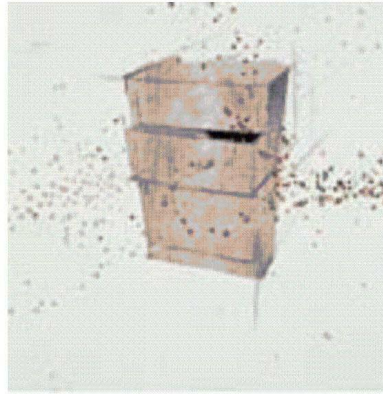
<작품3-3>은 극에서 마지막장에 해당 될 수 있는데 나의 감정이 다 일어 나면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본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과 달리 내면적 감성공간으로서의 바탕에 색을 배제 시켰다. 그것은 화면 밖의 세계인 외부 공간과의 연결을 의도하는 계속성을 표현하기에 추구된 것이다. 공간 면에 있어서 앞서 본 작품들의 짝 차있는 작품들에 비해 반대적으로 비어있는 상태를 만들어 외부와의 소통을 지니게 하고 더욱 더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여기서 빈 공간으로 주어진 여백은 물리세계가 아닌 정신을 연결하는 것이다. 즉 내면적 생각의 흐름을 담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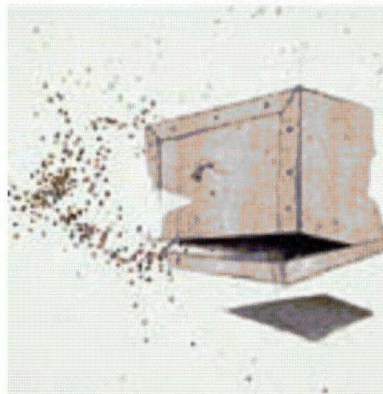
여백이 주는 비어있는 공간연출이라 선, 투시선 또는 형 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본인의 정신세계와 선·형들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결합하여 조형적으로 더욱 더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제작하였다.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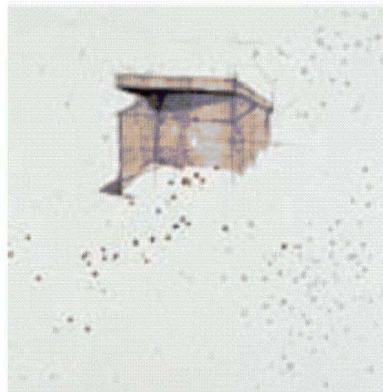
<3-1>



<3-2>



<3-3>



My Juke Box

wood cut print, mixed media each_ 70×70cm, 2003

<작품4>

본 작품에서 드러나는 상자는 다른 작품의 형상들에 비하여 시각적 강조를 주는 상자과 그 하나의 상을 뒤 바쳐주는 다양한 상자들이 더해지면서 화면 안에 공간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똑같은 형태가 다양한 크기로 반복된다면 형태의 공간적인 효과는 깊어진다. 그러나 서로 다른 형태의 반복으로서는 효과가 앞의 경우보다 못하다. 반복되는 상자에서 뒷 배경의 공간을 결합. 흐름을 동시에 소통시켜줌으로써 지루함과 단절을 없애고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느낌을 주었다.

녹색조는 풍만함과 충족감을 느끼게 해주며 신비로운 열록소의 색을 담아내고 있기에 본인의 깊은 내면적 심상을 나타내기에 다양한 상자들의 이미지가 주는 깊이 있는 공간에 어울리는 색조라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색상을 공간에 선택했다 하더라도 같은 색의 범위 내에서 명도와 채도를 달리하여 MIX해줌으로써 공간의 밀도를 더해주고 화면에 통일된 공간감을 내도록 하였다. 상자의 백색면적과 유채색의 대비로서 화면에 명쾌함과 생동감을 주었다.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투영성을 가진 상자과 또는 약간 이질적인 상자들의 형태들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붙잡혀지지도 않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새어 빠져 달아나는 시간의 영역 속에 있는 나의 감정들의 이미지들이다.

그리고 동요되는 본인의 감성의 움직임이 더욱 더 늘어나도록 녹색에 대비되는 붉은색 점을 화면 끝에 사라지게 찍어내면서 아련한 그리움의 느낌잔상을 전하려고 하였다.

[작품 4]



My Juke Box

wood cut print, mixed media 140×78cm, 2003

<작품5>

본 작품은 앞서 본 작품들과는 약간의 다른 의미를 지닌다. 앞서 보았던 작품들은 모두다 비어져있는 상자를 제시함으로써 나의 정서적 현상이 표출되어진 상태를 말한 거라면 이 작품은 표출되어지기 전에 나의 수집상자들 속에서 심상들이 담겨져 있는 생명력 넘치는 상자로서의 표현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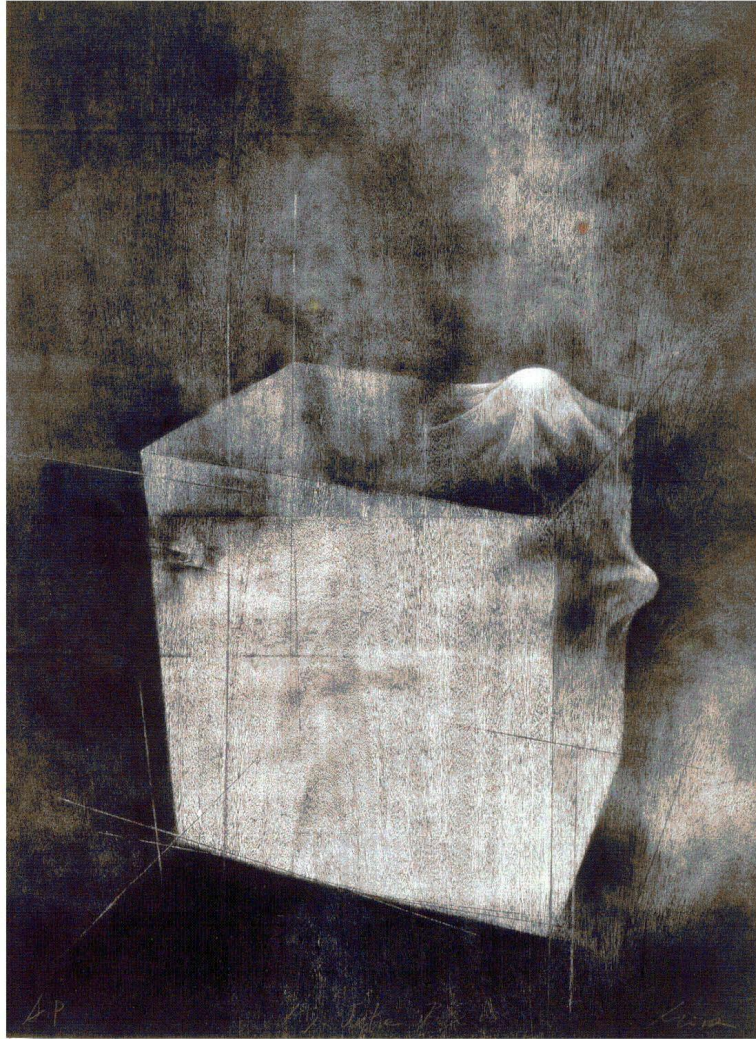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본 작품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는 과거의 추억이나 경험에 따라 일어나는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감성적 동요로서의 점들이 증폭된 내면의 수집상자로서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튀어 나올려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화면은 실제적 공간이면서도 비 실제 하는듯한 감각적인 것에 대한 동경을 일깨워준다.

우주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들의 세계가 살아있는 공간, 즉 밀도 있는 내면의 공간으로 표현된다. 단순한 생략은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이끌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깊은 내면의 세계를 더욱더 표현하기 위해 바탕공간부분을 수채물감이 주는 얼룩과 선명하게 들어나는 촛농효과의 점들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베니아판의 결만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어둡게 찍어낸 후 감정이 퍼져나가는 얼룩부분을 검은색 파스텔로 문지르면서 더욱더 아련한 효과를 내주었다.

[작품 5]



My Juke Box

wood cut print, mixed media 100×139cm, 2003

V. 결 론

본인은 기억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장기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손에 닿았던 부산물들이나 기록을 모아온 수집 상자에 주목하였다.

본인은 개인적인 추억을 저장해줄 수 있는 상자들을 통해서 묻어나는 특유의 정서적 현상을 일반화 시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적 현상 이미지와 감성적 동요 표현에 대해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로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단순하고 비어있는 상자가 과거에 생성된 시간과의 소통을 일으키는 상징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감성표현을 위한 조형요소로서 작품에 나타나는 점, 선, 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는 본인이 수집 상자에 대한 접근한 태도가 단순히 잡동사니를 담은 수집 상자를 표현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지점이 현재에 시간까지 오고가는, 즉 시간과 공간이 넘나드는 상자와 만나서 나누는 정서적 현상들이 빚어내는 감성적 동요를 반영,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품제작에 따른 본인의 표현기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인이 바라보는 판화적요소와 다른 요소가 결합된 판화적인 개념에 대하여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본인은 작품상에서 감정의 미묘한 동요 현상을 비교적 섬세한 감정 변화로 표현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조형적으로나 시각적으로 강렬한 표현 전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본 연구를 계기로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앞으로의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조형적 시도와 접근방법, 그리고 표현내용에 있어 더욱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색 해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윤현섭 「정서의 논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73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2명 역,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Aniela, Jaff

「美術과 象徴」, 이희숙 역, 열화당, 1985

Birren, Faber

「색채의 영향」, 김진한 역, 시공사, 1997

Henri Bergson

「물질과 기억」, 홍경실 역, 시공사, 1991

Hyppolite, J

「헤겔의 정신현상학」, 이종철, 김상한 역, 문예출판사, 1994

Kandinsky, W.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1985

「점·선·면」, 차봉희 역, 열화당, 2004

ABSTRACT

Reminiscence from Empty space

Chung, Mi Ra

Dept. of Print 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my art work during 2003.

I have some collecting boxes and use them to gather my personal belongings that I've used for long . The boxes are where I recall my personal memory and experience through my whole life.

As time goes on, people gradually and naturally forget about what happened to them in the past.

However, I have realized that things in my collecting box remind me of the old days and I fall into sentimental moods then. After this realization, I have tried to convey emotions in my heart when I open the boxes that drive me to go back to the past.

In this page, I am briefly about to explain what inspires me to collect the boxes and finally what occurs to m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And I also give you a full explanation about what has to do with the basic ground of my work where a number of dots are freely moving and floating.

Moreover, I will introduce how I manipulate the empty space in order to deliver sentient and sentimental moods.

I hope that this paper suggests enough pictures of my work and explanation for you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about what I feel and what I learn from my work of art.